

샌프란시스코 호텔! 가성비 굿 spero

 김군의 여행스케치 · 2019. 11. 22. 0:50

URL 복사

+이웃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장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 바로 샌프란시스코 소식으로 호텔 한 곳을 좀 추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번 여행을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나름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곳으로 갔고 4박 모두를 이곳에서 지냈는데 서비스 좋고, 객실 분위기 맘에들고, 뷰 굿이고 가격 괜찮고 직원들 친절하고 뭐 단점을 꼽기 보다는 장점이 많은 그런 숙소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첫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형 캐리어 두개 세개도 충분히 펼 수 있을 만큼 객실이 넓습니다 그리고 가구나 인테리어도 요즘 감각에 맞게 브라운계열의 색상이 참으로 맘에들고 따듯합니다 그리고 침대와 베개역시도 상당히 편안 합니다 조명이 여러개 있어서 전부 다 켜면 객실이 밝고 좀 밝다 싶으면 조명을 몇개 끄면 되니 뭐 본인 스타일에 맞게 객실을 밝고 어둡게 조절이 가능 합니다



일단 객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큰 사진으로 넓적 넓적하게 보여드려보면 다양한 패턴의 무늬가 일단 눈에 띄고 잘 정리된 침대 커버와 먼지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바닥과 침대~ 처음 방에 들어가서 느낀 감정은 깨끗하고 아늑하다 였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호텔 은 오직 이곳 뿐이라서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여러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이곳 스페로 hotel이 나름 전세계 고객들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개인적인 건데~ 1층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커피와 우유를 제공한다는 점은 상당한 매력입니다 시차적응을 위해서 아침에 꼭 커피한잔을 크게 한컵 먹었는데 아주 맛도 훌륭하고 우유를 섞어서 카페모카로 먹기에도 좋습니다



냉장고는 테이블 아래에 나무 문을 열면 존재하고, 잔도 두개가 사이좋게 놓여있고, 벽에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악세사리가 걸려있습니다 호텔 악세사리를 보면 그곳의 분위가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샌프란시스코 분위기와도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아늑함이었습니다 다시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간다고 해도 전 또 여기 hotel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첫날부터 불편함 없이 마지막 날 까지 아주 만족 대만족 입니다



사진에서 왜곡이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구조를 보면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우측에 이렇게 화장실겸 샤워실이 존재 합니다 욕조가 없긴 하지만 따뜻한 물도 칼칼 잘 나오고 피로 풀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지도, 어메니티도 부족함없어 불편함 제로 입니다 다만 미국에선 주의해야 할 건 칫솔-치약은 없습니다 당연히 여분으로 챙겨왔기에 문제가 없지만 새벽시간에 도착하게되는데 칫솔 없어서 짹짹함을 안고 취침한적이 몇번 있기때문에^^ 미국행 비행기 탑승전엔 무조건 칫솔 치약을 챙깁니다

그리고 보면 대만이나 한국 등 아시아권에선 무조건 적으로 칫솔 치약을 어메니티에 포함하여 준다는 점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에 유리가 크게 부착되어있어 분명 공간이 좁지만 넓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수건도 사진처럼 넉넉하게 주고 관휴지도 있고
드라이기, 비누, 로션 등 구비되어 있습니다 매너팁을 두고나면 수건과 휴지는 매일매일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로션이나 비누는 1회만 지급 했던걸로 기억 합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 갈때 날씨가 엄청 추울것을 예상하여
두꺼운 옷을 너무많이 챙겨갔는데 그렇게 춥진 않고 저녁 늦게만 추웠는데 이곳 숙소가 워낙 따듯했기에
고생 1도 안하고 아주 시차 적응도 잘 하고, 곳 컨디션이었습니다



창문을 위로 올리면 사진과 같이 이렇게 틈이 넓게 생깁니다 그 사이로 카메라를 넣고 밖을 보면
샌프란시스코의 전형적인 시티 뷰입니다 놀라운건 새벽엔 저멀리 산에서 안개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핑크빛과 하늘색, 자주빛 등 다양한 색상으로 보여줍니다
전 삼각대를 설치하고 저 멀리 산과 건물 사이를 앵글에 맞추고 on을 누르면 건물 사이에
구름이 뱀처럼 움직이는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관찰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로비의 문은 자동문으로 내부에서 외부로 갈때 버튼을 굳이 누르지 않아도 문이 열리는데
밖에선 안으로 들어올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물론 손으로 문을 열어도 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1층 로비의 모습입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인데
샌프란시스코 에서 이 숙소 때문에 여행이 더 좋고 행복했었다고 생각 합니다
구글맵으로 어디를 갈지 좀 검색은 1층 사진에서 보이는 이소파에서 좀 핸드폰 좀 끄적이고
커피한잔 마시고 나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0월 날씨가 아침일찍과 저녁은 조금 쌀쌀한 정도이고
점심은 더운?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분명 춥다고 이야기 하신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갔을때 샌프란시스코 날씨는 그정도 였습니다



언뜻 보면 로비가 산중턱에 있는 산장느낌이 나는듯 합니다만 도심 한가운데 있는
가격도 좋고 시설 좋고, 1층에서 커피 제공되고^^ 서비스 좋고 이것저것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바로 나가서 왼쪽으로 1분만 가서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마트가 있습니다
전 껌이나 콘센트 등 구입했는데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참고로 이곳 숙소는 콘센트 변환기 대여나 구입이 어렵기때문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전 항상 챙겨 다니다가 이번에 안가져와서 π 콘센트 변환기를 6천원 돈에 구입했습니다 영영 ππ)



다양한 각도로 보아도 로비가 상당히 넓고 출입문도 굉장히 크고 멋집니다
어찌보면 웅장함 마저 드는 숙소 로비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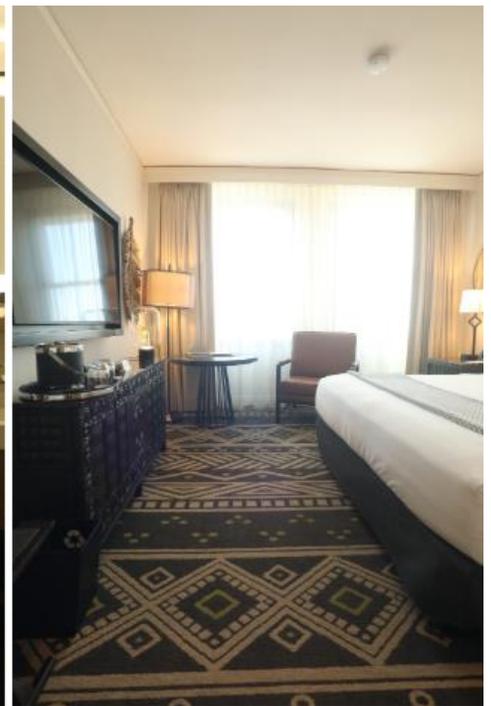




로비 한켠은 벽난로를 연상케 하는 느낌의 공간이 있는데~

불이 나오는것도 아니지만~^^ 왠지 불이 나와서 따듯한 느낌이 드는 효과가 있는듯 합니다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매력이 느껴지는 샌프란시스코 숙소 입니다 다음에 또 여기 여행와도 이곳에서 머물 수 있을만큼 대만족 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아늑하고 온화한 분위기 입니다

전 그리고 이번 샌프란시스코 여행 에서 드론도 날렸는데~ 드론을 날리기엔 숙소에서 워낙 아래로 10분 15분 걸어가야하기때문에 드론 숙소로는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드론이라는건 특수한 목적이기에 웬만한 여행객들에겐 뭐 전혀 문제없고 부족함이 없는 숙소 입니다 숙소 우측으로 나가서 길건너면 물이나 술 위스키를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위스키 미니 병에 들은거 모으는 분들에겐 천국 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전 캐리어에 몇개 건져왔는데 흔한 위스키 말고 좀 레어한 브랜드가 많습니다



베개는 꼭심함의 끝이고^^ 이불도 따뜻하고 매일매일 청소하고 정리 해 주기때문에
하루하루가 새 객실에서 머무는 듯 한 착각이 들 정도 입니다
연박을 하면 캐리어 옮길 필요도 없고, 좋은데 암튼 이번에 한 숙소에서
연박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객실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딱 상단의 사진 모습 입니다 카메라 앵글에 한번에 담기가 어려웠는데 자세히 보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측 화장실겸 샤워실 좌측은 옷장이있고 다리미, 금고가 있습니다 슬리퍼는 보통 hotel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신고있지만 여긴 카페트와 나무바닥이기에 안신어도 무방했습니다





아늑한 객실 뷰와 함께 이곳저곳에 놓인 인테리어 소품이나 장식이 다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인스타에 보니 요런 객실 분위기가 맘에들었는지 다양한 국적의 셀럽이나 고객들이 객실안에서 촬영한 사진이 유독 많습니다
브라운 계통의 분위기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다음에 만약 또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간다면 또 여기 스페로 hotel에서 묵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강추 해 드리고 픈 샌프란시스코 숙소 입니다